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음 7월 1일) 제23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8월, 전북 일원서 썸머 페스티벌

HOT하게, 때론 COOL하게

- 2~4일 얼티밋뮤직페스티벌
- 8~10일 전주 가막축제
- 18일까지 임실 아쿠아페스티벌
- 다채로운 대형 여름축제 열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 전북에서 다양한 썸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이 시작된다.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JUMP 2019 전주 얼티밋뮤직페스티벌, 전주 가막축제(8.8~8.10)와 18일까지 개최되는 임실 아쿠아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가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여름축제와 연계하여 축제 입장과 도내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북투어패스 여름상품을 출시 판매 중이며, 축제현장에는 투어패스 캐릭터인 투어몬과 패스몬이 방문하여 다양한 경품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 아외수영장, 정읍 철보물레마을원지, 임실 119 물놀이 체험장과 순창 강천산계곡, 무주 머투어인동굴 등 유료시설을 투어패스를 이용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을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개최하는 시골마을 작은축제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마을중심형 소규모 축제인 무주 두문마을 전통 낙화놀이(8.2~8.3), 장수 빈안 물빛축제(8.2~8.3), 남원 삼동굴 놀이(8.15)에서는 전통놀이,



8월, 전북지역에서 다채로운 썸머 페스티벌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가막축제' 현장.

무주 전통 낙화놀이 등 마을중심형 축제도 진행 차별화된 캠핑 프로그램 해수욕장서 영화제도 마련

물고기잡기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캠핑족을 위한 차별화된 캠핑 프로그램과 뜨거운 여름밤을 더 뜨겁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에서의 영화제도 마련되어 있다. 임실군 강변사리캠핑장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시인과 함께 하는

강변사리 체험' 운영으로 문학콘서트, 요리만들기, 한지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무주군 덕유대 야영장에서 8월 17일까지 토요일에 '야간 별자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여 한여름 밤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선유도 특설무대에서 '한여름밤의 선유도 영화제'를 진행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예정이다. 부안 변산 해수욕장에서는 8월 1일부터 3일간 바다로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댄스공연, 미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에서는 휴가철 도내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추천 여행지, 축제정보 등을 메일과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관광안내소를 활용해 주요 휴게소 및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직 휴가를 못 가신 분이 있다면 도내 다양한 축제와 물놀이 정보 참고해서 방문해 보시기 바라며, 최고의 여름 휴가지 전북에서 아름다운 먹거리와 흥겨운 축제를 동시에 즐기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019 제9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일시: 2019년 8월 3일(목) 오후 2시
장소: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9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를 오는 8월 3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공동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연맹 전주매일신문사 JJC 지방자치TV
후원: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전주시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063-288-9700)

※제9회 청소년 미술대회 입상자는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특기생으로 입학 가능.

전북도는 지난 31일 전북형 청년활동수당인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청년생생카드 발급 대상자를 439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8월부터 매월 30만원씩 1년 동안 청년생생카드로 도내에서 자기개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제적 정착기반이 약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청년들의 사회 활동 증진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농협, 전북은행, 하나카드 제휴

도, 전북형 청년활동수당 '생생카드' 발급 대상자 확정

대상자 439명 이달부터 월 30만원 1년간 360만원 지원
최종 접수인원 595명으로 전주시가 147명으로 가장 많아 선정된 대상자, 9일 사전교육에 참석 사용방법 등 교육

로 전북 청년생생카드를 처음으로 론칭하여 신개념 청년 복지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은 청년생생카드를 발급받아 헬스, 도서구입, 학원결제 등 자기개발이나 사회활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포인트 형태로 이용하고 이후 결제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더욱이 전북도내에서 사용한 금액만이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청년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20일 모집공고 이후 접수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21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는 하루 100여 명의 접수가 몰리면서 한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종 접수 인원은 595명으로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147명, 군산시가 94명, 익산시가 70명 접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접수 마감 이후 각 시군에서는 자격요건 심사 및 선정심사를 진행했으며, 중복수혜 대상 사업에 대한 적

격 여부 검토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청년생생카드 사업이 처음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졌고, 더욱이 사업비의 50%가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만큼 사업의 효과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점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의 청년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쌓아놓은 수많은 모순들을 한 몸으로 겪고 있는 세대이며, 이들에게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전라북도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 청년들이 활력 있는 전북, 청년이 당당한 전북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8월 9일 오후 3시에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시행하는 사전교육에 참석해 청년생생카드 사용방법과 시스템 매뉴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진성 기자

본사 인사

▲김양욱
명:부사장

(8월 1일자)

현대옥이야기

- ①현대옥의 수오지심 ②신메뉴이야기 ③지역사회 참여 ④콩나물국밥의 맛 ⑤스토리가 있는 현대옥콩나물국밥 ⑥소중한 조리 유산-토렴국밥 ⑦오늘은 엄마를 쉬게 하자 ⑧새로운 시작



*토렴응용식 '동영상'은 '현대옥본점 2층 콩나물막물판' 또는 '현대옥홈페이지-자료실-현대옥소개자료들' 참조

토렴국밥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상이 담긴 소중한 조리 유산, 토렴(滌染)

토렴국밥의 부활 - 현대옥만의 토렴응용식

토렴식 국밥의 조리 과정에서는 뜨거워지는 뚝배기를 찬 손이 손상을 입기 십상이며, 다량의 국밥을 신속히 조리해 낼 수도 없고, 가스전기 취사도구의 발달로 토렴식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옥은 사라져 가던 토렴조리법을 '토렴응용식'으로 부활시켰습니다. 드림세탁기가 손빨래 보다 훨씬 더 대량생산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처럼 '토렴응용식'은 기존 토렴조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였고 토렴국밥의 맛을 향상시켰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토렴국밥의 그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토렴국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옥홈페이지 자료실 참조